

효성 “2028년까지 1조원 투자 탄소섬유 글로벌 톱3 도약”

정세균 총리 효성 전주공장 방문

조 부회장 “기술개발 국가경제 기여”

정 총리 일행 박수 화답하기도

탄소섬유 수소차 연료탱크 등 관심

정세균 국무총리는 24일 오후 전주시 덕진구 소재 효성첨단소재(주) 전주공장을 찾아 탄소 소재 산업의 발전 가능성을 눈여겨봤다. 전주에서 이날 열린 한국탄소산업진흥원 개원식에 참석해 탄소 소재 산업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 방침을 약속한 직후다.

정 총리와 송하진 전북지사, 정운천 의원 등은 효성첨단소재 전주 공장에서 조현상 효성그룹 부회장으로부터 탄소 소재로 만든 헬멧과 수소차 연료탱크, 등산 스틱 등 제품 설명을 듣고 질문을 쏟아내는 등 관심을 보였다.

효성 측은 오는 2028년까지 설비구축과 연구개발(R&D)에 모두 1조원을 투자해 10개 생산라인, 연산 2만4000t의 생산규모로 설비와 생산량을 확대하겠다고 이날 밝혔다. 지난해 1차 증설을 완료해 현재 연 4000t의 생산능력을 확보했으며, 오는 2029년까지 세계시장 점유율 10%의 ‘탄소섬유 분야 글로벌 톱3’로 도약하겠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효성 측은 아울러 “효성첨단소재는 한국기업으로는 유일하게 탄소섬유 개발 및 상업화에 성공한 기업”이라며 지난 2008년부터 전주시와 협업을 통해 ‘미래 산업의 쌀’로 불리는 탄소섬유 개발을 본격화하고, 지난 2011년 4년 여간의 연구 끝에

독자기술을 기반으로 한 탄소섬유 개발에 성공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일본·독일·미국에 이어 세계에서 4번째로, 효성은 정부가 추진하는 수소경제시대를 앞당기기 위한 탄소섬유 투자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효성 측은 “효성은 2015년부터 글로벌 1위 고압용기 업체에 탄소섬유를 판매 중이며, 수소연료 운송장치 등에 효성의 탄소섬유 브랜딩 탄소가 활용되도록 하는 등 정부의 수소경제 활성화에 적극 앞장서고 있다”고 밝히자 정 총리 등 일행은 박수로 화답하기도 했다.

정 총리 등은 이날 효성첨단소재가 생산한 탄소섬유를 활용해 만든 탄소섬유 볼록, 수소차 연료탱크, 등산 스틱, 자동차 휠 등에 관심을 보였다. 조현상 부회장이 진열된 강철 소재 볼록(11.7kg)과 바로 옆 동일 크기의 탄소 섬유 소재 볼록(2.4kg)을 가리키며 “탄소섬유는 강철에 비해 무게는 25% 수준이지만 강도는 10배 이상 높다”고 설명하자, 정 총리는 두 볼록을 동시에 들어 보이며 “우와, 탄소 소재가 정말 가볍네요. 휠씬 가볍네요”라고 감탄했다.

이어 조 부회장이 등산용 스틱을 들어 보이며 “지난 2019년 문재인 대통령의 효성 전주 공장 방문 당시 저희 소재로 만든 등산 스틱을 선물했다. 등산을 좋아하시는 문 대통령께 개개원 트래킹 하실 때 꼭 써달라고 했던 것”이라고 설명하자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관심을 드러냈다.

정 총리 일행은 효성의 ‘기술에 대한 철학’에도 공감을 내비쳤다. 조 부회장이 “기술을 육성해서 국가 경제에 이바지한다는 창업정신을 지키고 있다”면서 “경영진의 70%가량이 공학 전공 엔지니어일 정도로 (효성의 기업 정신에는)기술에 대한 철학



24일 전북 전주에서 ‘한국탄소산업진흥원’ 개원식이 열렸다. 정세균(오른쪽 6번째) 국무총리와 송하진 전북도지사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현판식을 갖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이 담겨있다”고 소개했다. 또한 “효성은 지난 1971년 민간기업 최초 기술연구소 설립하는 등 기술에 대한 철학 덕분에 지난 2013년 신소재인 폴리케톤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탄소섬유는 전략물자로서 철저한 기술보안 관리대상이다. 탄소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복합재료 가공기술의 동반 성장이 필수다. 복합재료 밸

류체인(Value Chain)을 형성하기 위해 효성첨단소재는 전북도, 전주시 등과 협력해 전주를 중심으로 탄소산업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노력해왔으며, 이를 통해 국내 자체 공급망 구축에 앞장서왔다.

탄소섬유는 강철과 비교하면 무게는 4분의 1 수준이면서 강도는 10배 이상 높다. 경량화를 통한 에너지 사용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핵심 소재로 주

목받고 있다. 탄소섬유는 전 세계 시장 수요가 매년 10% 이상 성장하고 있다. 산업용으로는 압력용기, 토목건축, 전선심재, 일반산업 용도로 활용되고, 항공용으로는 항공기 구조재, 내장재 등으로 활용된다. 스포츠·레저용으로는 골프채, 낚시대, 고급 자전거, 라켓, 고급 레저용 선박 등에 활용한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민주당, TF팀 꾸려 공론화 나주SRF갈등 해법 찾을까

신정훈 의원 탄소중립위에 제안 전국 10여곳 사업 중단·좌초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 문제를 둘러싸고 민주당 탄소중립특별위원회가 관련 TF팀을 구성하고 공론화하기로 했다. 진통을 거듭하고 있는 나주SRF 문제가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신정훈(나주화순) 국회의원은 24일 “민주당 탄소중립특별위원회 실행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날 ‘나주SRF 발전소를 대표적인 사례로 삼아 탄소중립위에서 공론화를 통해 논의해 줄 것’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SRF 처리 문제는 전국적인 현상이다. 지난 3년간 SRF 발전소 사업허가를 받은 60여 곳 중 나주를 비롯 강원 원주, 경기 양주·동두천·여주, 담양·무안 등 10여 곳의 사업이 중단되거나 좌초되고 있다.

나주 SRF의 경우 연료계획상 광주쓰레기

처리 81%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이해당사자인 자치단체와의 협약과 의회 등의 등 행정적 절차가 미흡했고, 쓰레기를 연료화하면서도 주민수용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아 발생한 정책의 실패로 갈등 중단을 위한 손실 비용이 발생되고 있다. 이와 관련 신 의원은 탄소중립특별위원회가 정부의 SRF 정책에 대한 진단과 평가를 기초로 국무총리실을 비롯한 나주거버넌스 참여 주체들과의 협의와 소통 등을 통해 대책 마련에 적극 앞장서 줄 것을 제안했다.

신 의원은 “민주당 탄소중립특별위원회에서 특정 지역의 문제를 넘어 전반적인 SRF 정책 방향을 고려하기로 했으며, 위원회 발전분과를 중심으로 TF팀을 꾸려 논의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 탄소중립특별위원회는 정부의 ‘2050탄소중립선언’에 발 맞춰 지난 2월 출범한 당내 기구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정책목표 실현에 앞장서고 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광주 산정지구에 2029년까지 아파트 1만3000가구 조성

정부 신규 공공택지 추진 계획 포함 市, 광주형 일자리 주거 등 개발 논의 도심 공동화 가속·인구 쏠림 우려도

광주시 광산구 산정동, 장수동 일원에 광주형 일자리 주거 지원, 평생 주택 공급을 위한 대규모 공공주택단지가 조성된다. 다만 인구 편중 현상이 심각한 광산지역에 대규모 공공주택이 집중 공급되는 것에 대해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광주시는 24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신규 공공택지 추진계획에 광주 산정 공공 주택지구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해 2025년까지 전국에 83만호 주택 부지를 공급하는 내용으로 발표한 ‘2·4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다. 산정 공공 주택지구는 산정동, 장수동 일원 168만3000㎡(약 51만평)에 1만3000가구, 생활기반 시설, 자용용지 등을 공급하게 된다. 개발 예정 구역과 인근 지역은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된다. 이곳은 송정역과 가까워 광역교통 여건이 좋고

남한 진곡산단로, 무안~광주 고속도로, 하남대로를 통해 광주 도심뿐 아니라 무안, 나주 등 전남 인접 시·군의 접근성도 우수하다는 게 광주시의 설명이다.

정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시는 다양한 개발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우선 광주형 인공지능(AI)-그린 뉴딜, ‘2045 탄소중립 에너지 자립 도시’ 실현을 위해 자연 친화적 주거단지를 조성할 방침이다. 광주형 일자리 사업과 연계한 빛그린산단 등 근로자에게 양질의 주거지를 공급하고 스마트 물류, 청년창업 플랫폼도 구축한다. 청년, 신혼부부 등 중산층 이하 무주택 가구에는 질 좋은 평생 주택을 공급하고 학교, ‘에듀 파크’, 38만㎡ 규모 공원과 녹지도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산정 공공 주택지구는 내년 상반기 지구 지정을 완료하고 2023년 지구 계획이 승인되면 2024년 보상에 착수할 예정이다.

절차가 순조로우면 2025년 착공해 2029년 완공된다. 지역에서는 이번 대규모 공공주택 공급방안을 놓고 청년, 신혼부부 등 중산층 이하 무주택 가구 등에 집중 공급된다는 점에서 대체로 반기는 분위기다. 하지만 일부에선 아파트 신축지역이 인구 쏠림이 심각한 광산구인데다, 도심외곽에 집중 배

정됐다는 점을 들어 ‘구도심 공동화’ 가속, 특정 자치구 인구 편중현상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자칫 공공주택 주민만의 고립화가 진행될 수 있고, 도심 외곽에 조성됨에 따라 기차역이나 침체한 구도심 인구유출 등도 염려된다는 것이다. 광주는 북구와 광산구에 절반이 넘는 시민이 거주하면서, 특정 자치구 인구 편중에 따른 각종 부작용도 속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광주시는 최근 북구와 광산구 일부 지역 등을 중심으로 구간경계 조정에도 나섰다. 광산 지역의 거센 반발로 무산되기도 했다.

건축 전문가들은 또 도심 외곽지역에 신축하는 아파트 건설 방식에 대해서도 우려감을 나타낸다. 인구 감소에 따른 구도심 슬럼화를 막기 위해서라도 구도심 노후 아파트 재생 등을 활용한 공공주택 공급 등을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 건축 전문가는 “특정지역을 정해 놓고 대규모 공공주택을 건립하는 것은 손쉬운 방법일 수 있겠지만, 전체 도시 구조를 보면 바람직한 방식은 아니다”면서 “구도심 공동화 등 광주도심의 미래를 고려한 공공주택 공급을 고민할 때”라고 주장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201210-중-116878호

단, 환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바른자세, 꾸준한 운동, 세심한 관리로 튼튼한 ‘인생’ 튼튼하게 ‘즐기세요’

척추 무릎 어깨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첨단우리병원

대표전화 | 062) 970-6000

전화로 MRI를 미리 예약을 하시면 1~2시간 이내에 진단 및 치료가 가능!

광주보청기 난청센터

보청기

무료체험

직접 체험 후 결정!!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 웅웅~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362-3336

광주 동구 대인동 183-2번지 (한미쇼핑사거리)